

제주지역 가계대출 연체율 역대 최고 기록

지난해 11월 말 기준 1.32%… 대출은 증가세 유지
주택담보대출 증가폭 확대… 기업대출 감소 전환

제주지역 예금은행 연체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가계 대출 연체율이 한 달 사이 큰 폭 뛰며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11월 중 제주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지난 해 11월 말 기준 제주지역 예금은행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1.18%로 전월 대비 0.06% 포인트(p) 상승했다. 연체율은 최근 두 달 연속 올라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4월(1.23%)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가계대출 연체율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제주지역 가계대출 연체율은 1.32%로 전월(1.15%)보다 0.17%p 상승하며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앞서 지난해 1월(1.19%) 최고치를 찍고 다소 완화되는 흐름을 보였으나 4월 1.25%로 급등하며 다시 최고치를 새로 썼고 5월(1.26%)에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2024년 11월부터 줄곧 1%대에 머물고 있다.

세부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40%로 전월 대비 0.02%p 상승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1.15%로 전월 대비 0.02%p 하락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중 도내 금융기관 여신(잔정)은 303억원 증가하며 전월(+1827억 원)보다 증가 폭이 크게 축소됐다. 11월 말 기준 여신 잔액은 전년 동월 대비 1.9% 증가한 40조5461억원이다. 지난해 1월부터 꾸준히 40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기관별로는 예금은행(+1194억원→+1401억원)은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비은행금융기관(+

633억원→-1098억원)은 감소세로 전환했다.

차입 주체별로는 기업대출이 전월 1352억원 증가에서 261억원 감소로 돌아선 반면, 가계대출은 391억원 늘며 증가세를 유지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221억원→+359억원) 증가폭이 확대됐고, 기타 가계대출(+85억원→+32억원)은 증가폭이 둔화됐다.

수신(잔정)은 317억원 늘어나며 전월(-3359억원) 대비 증가 전환했다. 요구불예금(-67억원→+2651억원)이 공공예금(-277억원→+2517억원)을 중심으로 늘어난 영향이 커졌다.

오는지기자 ejoh@ihalla.com

농작업 편의장비·임대 농기계 지원

올해 '제주도-농협 협력사업' 본격 추진

농촌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과 농업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2026년 도-농협 협력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농협 협력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도와 농협중앙회가 업무협약을 맺고 2019년부터 추진해 온 민간 협력 모델로, 지난해까지 농작업 편의장비 9748대, 대행(임대)용 농기계 642대를 지원해 고령농과 영세농의 영농 부담을 줄여 왔다.

올해 사업에는 총 25억6500만 원(도비 13억5000만, 농협 중앙회 3억2400만, 자부담 8억9100만)을 투입해 농가 보급형 농작업 편의장비와 농작업 대행(임대)용 농기계

가 지원된다. 우선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으로 전동가위, 동력운반기, 관리기, 농약 분무 제어장치, 파쇄기 등 농업 현장 맞춤형 장비를 개별 농가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이며, 사업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2월 10일까지 받는다.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공급 기종은 형식 승인·품질 인증을 받은 농기계로, 농가당 1기종 1대에 한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농작업 대행(임대)용 농기계 지원사업으로는 트랙터, 콤바인, 굴착기 등을 도내 지역농협에 지원한다. 신청은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에서 받는다.

오는지기자

공공형 계절근로 10개 농협으로 확대

도, 올해 연인원 12만 명 농번기 지원 예정

'농케이션' 확대 등 유·무상 영농 인력 투입

제주특별자치도는 올 한 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 10개 농협으로 확대 운영되는 등 연인원 12만 명을 농번기에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도가 수립한 2026년 영농 인력 지원 계획에 따르면 연인원 기준으로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4만 명, 농촌인력중개센터 2만 명,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2만 명, 계절근로자 등 4만 명 투입을 계획하고 있다.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선사업비 4억9000만원을 들어 도내외 유·무상 인력을 공급한다.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에 설치한 지원센터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연계해 인력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선사업비 4억9000만원을 들어 도내외 유·무상 인력을 공급한다.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에 설치한 지원센터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연계해 인력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선사업비 4억9000만원을 들어 도내외 유·무상 인력을 공급한다.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에 설치한 지원센터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연계해 인력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선사업비 4억9000만원을 들어 도내외 유·무상 인력을 공급한다.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에 설치한 지원센터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연계해 인력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선사업비 4억9000만원을 들어 도내외 유·무상 인력을 공급한다.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에 설치한 지원센터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연계해 인력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선사업비 4억9000만원을 들어 도내외 유·무상 인력을 공급한다.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에 설치한 지원센터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연계해 인력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선사업비 4억9000만원을 들어 도내외 유·무상 인력을 공급한다.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에 설치한 지원센터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연계해 인력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선사업비 4억9000만원을 들어 도내외 유·무상 인력을 공급한다.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에 설치한 지원센터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연계해 인력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선사업비 4억9000만원을 들어 도내외 유·무상 인력을 공급한다.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에 설치한 지원센터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연계해 인력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선사업비 4억9000만원을 들어 도내외 유·무상 인력을 공급한다.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에 설치한 지원센터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연계해 인력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선사업비 4억9000만원을 들어 도내외 유·무상 인력을 공급한다.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에 설치한 지원센터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연계해 인력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선사업비 4억9000만원을 들어 도내외 유·무상 인력을 공급한다.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에 설치한 지원센터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연계해 인력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선사업비 4억9000만원을 들어 도내외 유·무상 인력을 공급한다.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에 설치한 지원센터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연계해 인력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선사업비 4억9000만원을 들어 도내외 유·무상 인력을 공급한다.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에 설치한 지원센터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연계해 인력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선사업비 4억9000만원을 들어 도내외 유·무상 인력을 공급한다.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에 설치한 지원센터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연계해 인력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선사업비 4억9000만원을 들어 도내외 유·무상 인력을 공급한다.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에 설치한 지원센터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연계해 인력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선사업비 4억9000만원을 들어 도내외 유·무상 인력을 공급한다.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에 설치한 지원센터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연계해 인력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선사업비 4억9000만원을 들어 도내외 유·무상 인력을 공급한다.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에 설치한 지원센터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연계해 인력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선사업비 4억9000만원을 들어 도내외 유·무상 인력을 공급한다.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에 설치한 지원센터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연계해 인력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선사업비 4억9000만원을 들어 도내외 유·무상 인력을 공급한다.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에 설치한 지원센터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연계해 인력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선사업비 4억9000만원을 들어 도내외 유·무상 인력을 공급한다.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에 설치한 지원센터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연계해 인력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선사업비 4억9000만원을 들어 도내외 유·무상 인력을 공급한다.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에 설치한 지원센터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연계해 인력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선사업비 4억9000만원을 들어 도내외 유·무상 인력을 공급한다.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에 설치한 지원센터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연계해 인력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선사업비 4억9000만원을 들어 도내외 유·무상 인력을 공급한다.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에 설치한 지원센터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연계해 인력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선사업비 4억9000만원을 들어 도내외 유·무상 인력을 공급한다.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에 설치한 지원센터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연계해 인력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선사업비 4억9000만원을 들어 도내외 유·무상 인력을 공급한다.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에 설치한 지원센터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연계해 인력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선사업비 4억9000만원을 들어 도내외 유·무상 인력을 공급한다.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에 설치한 지원센터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연계해 인력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선사업비 4억9000만원을 들어 도내외 유·무상 인력을 공급한다.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에 설치한 지원센터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연계해 인력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선사업비 4억9000만원을 들어 도내외 유·무상 인력을 공급한다.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에 설치한 지원센터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연계해 인력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선사업비 4억9000만원을 들어 도내외 유·무상 인력을 공급한다.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에 설치한 지원센터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연계해 인력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선사업비 4억9000만원을 들어 도내외 유·무상 인력을 공급한다.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에 설치한 지원센터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연계해 인력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선사업비 4억9000만원을 들어 도내외 유·무상 인력을 공급한다.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에 설치한 지원센터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연계해 인력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선사업비 4억9000만원을 들어 도내외 유·무상 인력을 공급한다.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에 설치한 지원센터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연계해 인력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선사업비 4억9000만원을 들어 도내외 유·무상 인력을 공급한다.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에 설치한 지원센터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연계해 인력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선사업비 4억9000만원을 들어 도내외 유·무상 인력을 공급한다.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에 설치한 지원센터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연계해 인력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선사업비 4억9000만원을 들어 도내외 유·무상 인력을 공급한다.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에 설치한 지원센터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연계해 인력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선사업비 4억9000만원을 들어 도내외 유·무상 인력을 공급한다.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에 설치한 지원센터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연계해 인력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선사업비 4억9000만원을 들어 도내외 유·무상 인력을 공급한다.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에 설치한 지원센터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연계해 인력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선사업비 4억9000만원을 들어 도내외 유·무상 인력을 공급한다.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에 설치한 지원센터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연계해 인력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선사업비 4억9000만원을 들어 도내외 유·무상 인력을 공급한다.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에 설치한 지원센터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연계해 인력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선사업비 4억9000만원을 들어 도내외 유·무상 인력을 공급한다.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에 설치한 지원센터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연계해 인력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선사업비 4억9000만원을 들어 도내외 유·무상 인력을 공급한다.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에 설치한 지원센터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연계해 인력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선사업비 4억9000만원을 들어 도내외 유·무상 인력을 공급한다.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에 설치한 지원센터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연계해 인력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선사업비 4억9000만원을 들어 도내외 유·무상 인력을 공급한다.